불황 여파 소비자들 지갑 '꽁꽁'

광주지역 6월중 소매 판매액 9.8% ↓

생활물가 '고공행진' 판매액만 급증세

불황의 여파로 광주·전남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으면서 6월중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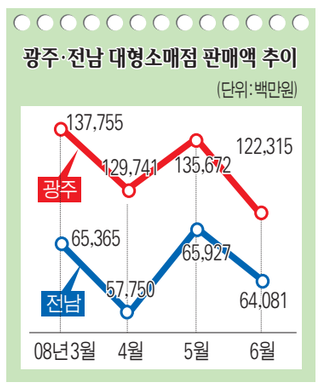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위축 속에서도 경상 판매액은 1년새 두자릿수 이상 급증하는 등 '물가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6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6월중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천2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1천356억원)에 비해 9.8% 줄어든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특히 광주는 올 들어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할인마트와 백화점의 경상 판매액이 1년 전보다 8.6% 늘었다. 고물가로 전반적인 소비는 줄었지만 생활물가지수가 1년새 8.0% 뛴 탓에 판매액만 늘어난 것이다.

전남도 6월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640억8천만원으로, 전달(659억원)보다 2.8% 줄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550억원)에 비해선 16.5%나 늘어난 것이어서 물가급등에 따른 판매액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6월중 전국의 소매판매금액은 20조1천146억원으로, 전달(21조5천572억원)에 비해 6.7% 줄었다. 또 이같은 판매액 규모는 1년 전보다 6.8% 증가한 것이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12월(3.5%)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더구나 2005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불변금액은 18조4천8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가격상승으로 경상 판매액만 늘었을 뿐 실제 소비량은 감소한 셈이다.

불변금액이 감소한 적은 2006년 7월(-0.6%)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은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크다. 불변금액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판매액으로, 2005년 이후 물가 상승폭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상품별로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차량용 연료 판매액이 1년 전보다 15.0%나 늘었고, 화장품·비누(13.9%), 식료품(7.4%) 등 비내구재 판매가 11.5%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판매액이 5.2% 떨어진 가운데 가구 판매도 8.8% 줄어드는 등 내구재 판매가 0.4%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내구재 구입을 포기한 채 소모품인 비내구재를 사는 데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 대형마트(6.8%) 등 대형소매점 판매가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편의점과 사이버쇼핑몰 등 무점포판매는 15.0% 늘어나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오리 햇사과 첫 선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 지하 식품매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생산된 아오리 햇사과를 선보이고 있다. 판매가격은 6개에 5천800원. 〈롯데광주점 제공〉

차세대 성장동력 'LED' 광주에 체험홍보관 구축

한국광산업진흥회, 12억 들여 12월 완공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기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발광다이오드)조명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LED체험홍보관을 설립한다.

LED 조명 및 응용제품 체험홍보관 구축을 통해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LED제조업체 우수제품 신규 수요창출과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신축중인 광주·전남에너지센터 1층에 자리할 홍보관은 실내공간 330㎡, 실외 165㎡ 등 500㎡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12억원이며, 8월 중순에 첫삽을 떠 올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체험홍보관은 모두 4개의 테마관을 구성하게 된다. 제 1테마관은 LED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발전역사와 응용분야를 설명한다.

제 2테마관은 주방·거실·침실 등 실생활에 적용되는 LED 조명 체험시설로 꾸며진다.

제 3테마관은 LED 수송수단 응용관으로 수송수단 실물과 모형 및 LED응용제품 등이 전시되고, 제 4테마관은 신기술제품 전시, 체험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LED체험홍보관을 통해 학생, 일반인, 전문가 및 해외 바이어들에게 국내 LED산업의 발전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 LED 응용제품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LED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홍보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촌 어르신들과 전화상담 서비스

농협전남지역본부, 독거노인 400명 대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농촌 독거노인의 정서안정, 소외감 극복 등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 고객지원센터와 협력해 지난 1일부터 '농촌어르신 전화상담(Phone-Care)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전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안부인사와 불편사항 확인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전화 119서비스 신청안내 ▲노인관련 생활편의 서비스 정보제공 및 전화사기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농협 담당자와 행정기관 사회복지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독거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된다.

전남본부는 도내 지역농협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400여명의 어르신들께 전화상담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숙자 전남농협 여성복지팀장은 "농촌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연락담당자가 말벗이 돼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소외감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여름철 물공급 대책 점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7일 전남본부와 주암댐, 여수권관리단 등을 둘러보고 여름철 물공급 대책을 점검한다.

김 사장은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홍수기를 맞아 물공급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전남도민들이 풍부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악재 제거' 금호그룹株 일제 상승

금호타이어 '풋백옵션' 리스크 해소 호재로

대우건설 문제까지 해결땐 본격 반등 기대

금호타이어의 풋백옵션 리스크가 제거된 것이 호재로 작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 25분 현재 금호타이어(2.82%), 금호산업(4.93%), 금호석유(4.19%), 대우건설(3.19%)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주가가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주요 그룹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주가가 이날 동반강세를 보이는 것은 전날 발표된 금호타이어의 지분 매각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날 금호타이어는 자사 지분 10.71%(750만주)를 갖고 있던 쿠퍼타이어가 투자전문회사 비컨(Beacon)에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 시장에서 제기됐던 '풋백옵션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5년 쿠퍼타이어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면서 IPO(기업공개) 가격인 주당 14.26 달러에 매입할 풋백옵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주가가 18.2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세계 경제 및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가 IPO 가격 이하로 내려가자 쿠퍼타이어의 풋백옵션 행사가 예견돼 왔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가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자금부담을 져야 할 처지였으나 쿠퍼타이어가 이번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계열사인 대우건설과 관련된 풋백옵션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어 주가의 본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2006년 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투자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12월까지 대우건설의 주가가 3만2천원대를 밑돌 경우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풋백옵션을 내걸고 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재무적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1억2천만주가 넘는데 1만3천원대에 불과한 대우건설의 현 주가수준을 감안하면 이들 투자자는 당연히 풋백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주식을 3만2천원대에 사들이려면 무려 4조원의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14일 또 4시간씩 부분파업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오는 14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손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2일부터 4차례 32시간(잔업포함시 44시간)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은 2천여대, 매출 손실은 270여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14일 부분파업이 진행될 경우 손실액은 생산 차질 450여대, 매출 손실 60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